

“콘미 신부와 크라운 은화”:
『율리시즈』에 나타난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와
영국 정부의 공모 관계 연구

최 석 무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즈』(*Ulysses*)는 식민지 상황의 아일랜드의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흔히 식민지 국가의 많은 작가들은 지배자의 악정을 폭로하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 조이스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정치적 잘못을 폭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그의 작품 속에서 파헤친다. 이는 조이스와 동일시되는 스티븐(Stephen)이나 블룸(Bloom)에게서 뿐만 아니라 조이스의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민(the Citizen)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의 작품 속에서 영국 사람들보다 아일랜드 사람들을 더욱 비난한다. 그리고 헤인즈(Haines)를 제외하고 영국사람은 작품 전면에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때로 조이스의 정치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린 작가로서 조이스를 간주하게 한다.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오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식민지화가 영국만의 잘못이 아님을 보여준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식민지화에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식민지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의 폭정보다 아일랜드의 정치, 종교, 문화가 조이스의 전 작품을 지배하는 주제이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아일랜드를 억압하는 이러한 권력체제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영국 제국주의의 공모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직, 간접적으로 영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특히,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회는 식민지 시대에 영국 정부와 대등한 영향력을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행사해 왔다. 그 영향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막강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일랜드의 카톨릭은 영국 정부와 공모관계를 가진 적도 있지만, 독립 투쟁을 이끌어 독립을 성취하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카톨릭 교회를 묘사하고 있고, 영국과 다름없는 억압자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배회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 에피소드의 첫 소품(vignette)을 분석하면서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회를 대변하는 인물로 콘미 신부(Father Conmee)를 제시하고, 콘미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카톨릭 교회와 영국 정부의 공모관계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II

조이스는 개인적으로 콘미 신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실러와 카리버디스”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콘미가 회초리에서 구해준 아이”(U 9. 21)라고 콘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피력한다.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에서 콘미 신부는 클롱고우즈 들판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본다. 이때 서술자는 “그가 그들의 교장이었으며 그의 다스림은 유순하였다”(U 10. 188)라고 평가한다. 이것 또한 조이스의 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또한 “조이스의 전기작가 허버트 골먼(Herbert Gorman)이 콘미를 ‘매우 점잖은 사람’이라고 묘사하자, 조이스는 그 말을 삭제한 후, ‘온화하고 예의 바른 인도주의자’”(Ellmann 29)라고 더욱 호의적으로 썼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콘미에 대한 조이스의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에서 콘미를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다. 즉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와의 정치적 역사적 관계의 맥락에서 콘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다른 담론처럼 조이스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세기 전환기의 정치적으로 주된 역할을 대변하는 사람들

을 콘미가 회상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한다.

콘미와 영국 정부와의 은밀한 공모관계는 외다리 수병이 그에게 동냥을 청했을 때 크라운 은화 한 닢밖에 없어서 축복만 하는 장면에서 은밀히 나타난다. 데클런 카이버드(Declan Kiberd)가 주장하듯이 콘미가 “크라운 은화”(one silver crown)와 헤어지기를 거부하는 행동은 “카톨릭 교회를 식민주의자”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이스가 치밀하게 사용한 구절이다(1034). 우연한 행동 속에서 교회와 영국의 공모관계가 밝혀진다. 콘미의 행동은 네스토(Nestor) 에피소드의 친영파인 디지(Deasy) 교장을 상기시킨다. 그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상징하는 영국 화폐들—sovereigns, halfcrowns, crowns(U 2. 219-20)—을 작은 저금통에 소중히 보관한다. 반면에 스티븐은 영국 돈이 상징하는 아일랜드 지배를 거부하듯이 디지 교장이 주는 급여를 아무렇게나 주머니에 넣고서, 돈의 의미를 “symbols soiled by greed and misery”(U 2. 227-28)라고 가치 절하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가 “G 지구 경위”(U 16. 131-32)로서 영국과 연관이 있는 콜리(Corley)에게 “halfcrowns”(U 16. 194)를 스스럼없이 빌려준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콜리는 하녀에게서 “a small gold coin”(D 58) 즉, “a sovereign”을 뜯어낸다. 조이스는 이와 같이 영국 돈에 나타난 지배의 의미를 이용하여 인물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크라운’이 상징하는 영국과 콘미가 대변하는 카톨릭 교회와의 공모관계는 콘미의 다른 행동에서도 우회적으로 나타나 있다.

콘미 신부는 디그넬의 아이들을 돕는데 기여한 마틴 컨닝햄(Martin Cunningham)을 칭찬한다: “good practical catholic: useful at mission time”(U 10. 5-6). 『더블린 사람들』 중 “은총”(Grace)은 마틴 컨닝햄이 커넌(Kernan)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이야기로써 콘미 신부의 표현대로 그가 전도하는데 유용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기계”(Wollaeger 801)라고 불리는 더블린 캐슬(Dublin Castle)에서 영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이다. 다른 영국 식민지와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식민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행정관료로서 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들은 당연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사이클롭스” 에피소드에서 컨닝햄과 그의 더블린 캐슬 동료인 잭 파워어(Jack Power)가 등장하는 모습이 옛 관료들이 서민들을 착취하는 모습(U 12.

1593-1620)으로 과장되어 제시되는 것처럼 그들은 영국 지배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사자들”(U 12. 1605)이라고 자신들을 일컫는다. 콘미 신부의 킨넨햄과의 유대관계는 카톨릭 교회의 영국 정부와의 관계를 은밀히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콘미와 같이 정청과 깊은 연관을 가진 카톨릭 교도들은 “정청 카톨릭교도”(Castle Catholics)라고 조롱 받았다.

킨넨햄보다 영국 정부와 더욱 관계 있는 인물은 콘미 신부에게 인사를 하는 경찰관이다. 군인과 더불어 아일랜드 국민들을 통제하여 영국 정부를 유지하는데 경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블린은 “영국에서 경찰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였다”(Wollaeger 801). 따라서 콘미가 경찰관에게서 인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장면을 통해 조이스는 카톨릭 교회가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성직자들은 법과 질서를 설교하면서 정치적 선동과 폭력을 반대했다. 조이스는 그의 에세이 「아일랜드, 성자와 현인의 섬」(Ireland, Island of Saints and Sages)에서 “영국은 카톨릭 교회가 반역할 때 박해하였고, 그것이 정복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을 때 멈추었다”(CW 166)라고 말한다. 경찰과 카톨릭 교회는 현재의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조이스의 지적처럼 교회는 경찰이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과의 관계를 통해 콘미 신부를 영국 정부와 연결시키는 일은 두 번째 소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코니 켈러허(Corny Kelleher)를 묘사하는 장면 속에 갑자기 콘미 신부의 묘사가 삽입된다: “Father John Connree stepped into the Dollymount tram on Newcomen bridge”(U 10. 213-14). 두 인물의 병형 관계는 경찰과의 관계 때문이다. 콘미 신부가 경찰관에게 인사를 받는 장면에서 영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듯이, 코니의 경찰관과의 비밀스런 대화는 모종의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암시해준다. “로터스 이터스” 에피소드와 “레스트리코니언” 에피소드에서 불륜은 경찰 밀고자로서의 코니의 정체를 밝힌다: “Police tout”(U 5. 14); “Corney Kelleher he has Harvey Duff in his eye. Like that Peter or Denis or James Carey that blew the gaff on the invincibles”(U 8. 441-43). “서씨” 에피소드에서 불륜과 스티븐이 두 명의 영국 군인과 충돌했을 때, 이들을 구해준 사람은 경찰과 친분을 가진 코니이다. 콘미 신부의 장면을 코니 장면에 삽입시킴으로써, 조이스는 카톨릭 교회의 영국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콘미 신부는 영국의 울지 추기경(cardinal Wolsey)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는 교회의 세속적 권력과의 공모관계를 더욱 잘 보여준다. 울지 추기경은 성직자 이면서 정치가였다. 콘미 신부가 생각하는 울지 추기경의 마지막 유언—“*If I had served my God as I have served my king He would not have abandoned me in my old days*”(U 10. 14-6)—은 성직자로서의 울지 추기경의 모습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 권력과 결탁하였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콘미 신부는 울지 추기경의 참회의 목소리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되는 묵상과 행동에서 정신적인 문제보다 세속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이는 그가 울지 주교의 말을 “잠시동안만 생각했다”(U 10. 12-3)는 점에서 강조된다.

길을 가다가 콘미 신부가 국회 의원 데이비드 쉬히(Mr. David Sheehy M. P.) 부인과 만나는 장면은 아일랜드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쉬히가 일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국회 의원이라는 사실이 세 번(10. 17; 27; 28)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암시된다. 그 결과 이들의 만남은 카톨릭 교회와 아일랜드 의회(The Irish Nationalist Party)와의 만남이며, 파넬(Parnell)을 몰락시킨 일에 있어서 이들의 공모를 짐작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힐리(T. M. Healy)는 파넬 반대자들—쉬히는 그들 중의 하나였다—을 규합하고 카톨릭 교회와 공모하여 파넬을 몰락시킴으로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지연시켰다. 힐리는 “당 지도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구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교회가 최대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Miller 76). 그리하여 사이먼 디덜러스(Simon Dedalus)가 말하듯이, “영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파넬을 버렸다”(P 32). 아일랜드 의회가 파넬을 몰락시킨 사건의 결과로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서 아일랜드 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사이클롭스” 에피소드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의정활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뜻을 함축하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Mr Cowe Conacre”(U 12. 860)에서 “Conacre”는 “중매인이 지주의 조그마한 땅을 높은 비용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용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Kiberd 1071). “Mr Orelli O'Reilly”(U 12. 869)에서 “O'Reilly”는 “구질서의 대들보”(Gifford and Seidman 341)를 의미하여 조이스의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다. 그들이 교회와 연합하여 파넬을 몰락시킨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아일랜드 독립의 장애물이다. 의회주의는 “합법적인 정치적 행동을 의회

활동에 국한시킴으로 체제 전복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자제시키기 위해” 식민 주의자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Cairns and Richards 90). 아일랜드 국회의원 쉬히와 콘미 신부의 영국과의 밀접한 연관은 다음 구절에서 암시된다. “Father Connée was wonderfully well indeed. He would go to Buxton probably for the waters”(U 10. 19-20). 여기서 “He”는 콘미를 말하는지 쉬히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대명사를 사용하여 조이스는 영국 바다 휴양지에 가는 두 사람 다를 암시함으로 영국과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블룸은 “레스트리고니언즈” 에피소드에서 1903년 총선에서 쉬히가 파넬의 동생인 존 하워드 파넬(John Howard Parnell)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 또한 쉬히가 파넬을 실각시킨 반파넬주의자임을 강조한다.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저지시키는데 있어 아일랜드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은 영국 카톨릭 교회이다. 그의 에세이 「아일랜드 자치가 무르익다」(Home Rule Comes of Age)에서 조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the most powerful weapons that England can use against Ireland are no longer those of Conservatism, but those of Liberalism and Vaticanism. ... It takes little intelligence to understand that Gladstone has done Ireland greater damage than Disraeli did, and that the most fervid enemy of the Irish Catholics is the head of English Vaticanism, the Duke of Norfolk. (CW 195)

조이스가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의 가장 큰 적이 영국 카톨릭의 대표”라고 한 사실은 영국 카톨릭 교회가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와 공모하여 아일랜드 정치에서 행사한 영향력을 상기시킨다. 그 결과 파넬을 실각시킬 수 있었고, 아일랜드 자치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에서 영국 카톨릭을 대변하는 인물은 버나드 본(Bernard Vaughan) 신부이다. 그는 실제 정치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영국 카톨릭을 대변하는 인물로 생각할 때 큰 의미를 내포한다. 콘미 신부는 본 신부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가 “아일랜드와 애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한다(U 10. 37). 여기서 아일랜드 카톨릭의 영국 카톨릭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영국 신부들은 아일랜드를 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콘미는 생각한다.

조이스는 본 신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함으로써 영국 카톨릭과 아일랜드 카톨릭의 연합을 거부한다. 예를 들면,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

(Grace)에서 본 신부를 펄던(Purdon) 신부의 모델로서 사용하였다. 특히 펄던은 더블린의 사창가 이름임으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적인 세계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 카톨릭이 아일랜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다. 블룸의 본 신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다. 블룸은 관중들이 본 신부의 설교보다 몰리(Molly)의 노래를 더욱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교황의 세속적인 취향을 생각함으로써 본 신부와 카톨릭 성직자들의 세속성을 비판한다.

Molly was in fine voice that day, the Stabat Mater of Rossini. Father Bernard Vaughans sermon first. Christ or Pilate? Christ, but dont keep us all night over it. Music they wanted. Footdrill stopped. Could hear a pin drop. I told her to pitch her voice against that corner. I could feel the thrill in the air, the full, the people looking up . . .

. . . Those old popes keen on music, on art and statues and pictures of all kinds. Palestrina for example too. They had a gay old time while it lasted. Healthy too, chanting regular hours, then brew liqueurs. (U 5. 397-401)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영국 카톨릭에 대한 스티븐의 태도 역시 콘미 신부와 사뭇 다르다. 학감과 대화를 하는 도중, 깔때기를 아일랜드에선 “tundish”(P 188)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스티븐에게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 상태임을 상기시켜 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인 이 단어는 영국에서는 사어가 되었지만 식민지인 아일랜드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식민지 지연현상”(colonial lag)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 결과 스티븐은 신부인 학감이 영국 사람임을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한다.

His courtesy of manner rang a little false and Stephen looked at the English convert with the same eyes as the elder brother in parable may have turned on the prodigal. A humble follower in the wake of clamorous conversions, a poor Englishman in Ireland, he seemed to have entered on the stage of jesuit history when that strange play of intrigue and suffering and envy and struggle and indignity had been all but given through a late-comer, a tardy spirit. (P 188)

콘미 신부는 영국 카톨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아일랜드 신교

도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그는 “incumbent”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이용하면서 신교도 목사를 조롱한다: “The incumbent they called him. He felt it incumbent on him to say a few words”(U 10. 70-1). 영국과 아일랜드 신교도들이 아일랜드 카톨릭을 미신으로 여겼든 것처럼, 콘미는 신교를 “invincible ignorance”(U 10. 71)라 부른다. 이는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신교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교도와 구교도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동양이나 아프리카에서처럼 피부색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는 지배 민족을 피지배자 민족과 구별하는데 효율적인 지침이 되었다. 콘미 신부의 신교도들에 대한 생각은 카톨릭에게도 이러한 이분법이 얼마나 뿌리 박혀있는지를 보여준다. 신, 구교도가 하나가 되어 독립된 아일랜드를 건설하자는 많은 독립투사들의 목표는 카톨릭에 의해 지지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콘미 신부가 대변하는 카톨릭 교회의 세계관은 이분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원리와 비슷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주장하듯이, “식민지화의 첫 번째 원칙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명확하고 절대적인 서열적 구분이 있다”는 점이다(82). 이는 그러한 서열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리의 원칙은 지배자의 삶을 모방하여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피지배자의 세계에서 나타난다. 특히 아일랜드인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온 카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가 피정복민을 통제하듯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리와 질서를 신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즉, 두 권력체계는 통제하고 현상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콜린 맥케이브(Colin MacCabe)가 주장하듯이, “교회의 권리는 ‘불가피한’ 사회적 변화를 부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억압적인 성윤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163). 밀회하다가 콘미 신부에게 발각된 린취(Lynch)에게서 인사를 받은 후 콘미 신부는 “Sin”(U 10.204)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콘미가 암송하는 “시편 119편(불가타 성서 118편)의 21 섹션을 이끄는 히브리어 표제어”이다(Gifford and Seidman 265). 그러나 또한 이것은 콘미가 특정한 행위, 여기서 린취의 연애행각을 죄라고 낙인찍는 말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표현대로 교회는 “육체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만들었다(19). 콘미의 이러한 태도는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철수하고 카톨릭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 무엇이 일어날 지 예견해준다. 조이스에게는 이분법에 충실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제국주의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콘미 신부가 성경의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장면은 아이러니 하게 들린다: “지배자들이 무고히 나를 꺾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 나이다”(U 10. 205). 콘미 신부가 대변하는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는 영국 정부에 의해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아일랜드를 지배해 왔다. 그리고 독립 후에도 영국과 다름없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콘미 신부가 “두툼한 흑인 입술로 얼굴을 찌푸려 보이는”(U 10. 141-42) 유진 스트래턴(Eugene Stratton)의 광고판을 보자, 콘미의 의식은 유색인종에 대한 생각으로 바뀐다. 흑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콘미의 흑인에 대한 견해를 대변하고, 이는 외모와 피부색깔에 의해 인간을 열등, 우등한 족속으로 분류하는 백인의 이분법적 세계를 대변한다. 이것은 스트래턴이 원래 “유진 오거스터스 룰머(Eugene Augustus Ruhlmann)이며 흑인 역할”을 한 백인이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Gifford and Seidman 108). 식민지화는 유색인종의 피부색을 암흑과 최악의 세계와 동일시하면서, 문명을 주고 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백인에 의해 정당시되었다. 다음 장면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콘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Father Connée thought of the souls of black and brown and yellow men and of his sermon on saint Peter Claver S. J. and the African mission and of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and of the millions of black and brown and yellow souls that had not received the baptism of water when their last hour came like a thief in the night. . . . Those were millions of human souls created by God in His Own likeness to whom the faith had not (D. V.) been brought. But they were God's souls, created by God. It seemed to Father Connée a pity that they should all be lost, a waste, if one might say. (U 10. 143-52)

“성 베드로 클레이버와 아프리카 사명”에 관한 콘미의 설교는 클레이버의 아프리카인 전도에 관한 것일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전도하려 한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였다(Gifford and Seidman 91). 위에 인용한 콘미의 의식을 읽어보면, 백인들이 흑인을 전도하는데 목적이 있지, 유색인종

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은 없다. 그들이 “폐물”이 되지 않게 그들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면, 노예화와 같은 수단은 정당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콘미의 의식은 루다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말, “백인의 책무”를 상기시킨다. 조이스가 트리에스테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었던 시드니 올리버(Sidney Olivier)의 책 『백인의 자본과 유색인종의 노동』(*White Capital and Coloured Labour*)이라는 책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백인은 인류를 위해 흑인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흑인들에겐 가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경제적인 이윤을 백인에게;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상승과 고양을 흑인에게”(Williams 380).

그람시(Gramsci)는 지식인을 “전통적인 지식인”과 “유기적인 지식인”으로 나눈다. 전자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지적인 집단의 성향에 동조”한다. 후자는 “태동하고 있는 대중적 힘과 동조하고 새로운 사상의 조류를 만들려고 한다”(Hall 21-2). 조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신부들은 전통적인 지식인에 속한다. 그들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지배적인 사회 권력과 공모하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지배체제를 옹호한다.

“전통적인 지식인에 속하는” 콘미는 백인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원주민 착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면에서 현상유지를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D. V.”는 신의 뜻을 말하며, 콘미 신부는 유색인종이 신앙이 없는 것을 신의 섭리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디지 교장처럼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든지 간에 현상유지를 원한다. 디지 교장은 “창조주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 .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인 하나님의 현현을 향해 움직인다”(U 2. 380-81)라고 말한다. 콘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길”(U 10. 172-73)에 관해 생각한다.

콘미의 미국의 재난에 관한 다음 생각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맥락 속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fortunate people to die like that, unprepared. Still an act of perfect contrition”(U 10. 91-2). 로버트 보일(Robert S. J. Boyle)이 지적하듯이, 『독일의 난파』(*The Wreck of the Deutschland*)와 “유리디스의 상실”(The Loss of the Eurydice)에서의 홉킨스(Hopkins)처럼 “그러한 고난의 와중에도 신의 사랑의 응답 가능성에 위안을 찾는다.” 콘미에게 “완전히 회개해야 하는 행위”는 “신이 주재한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를 말한다(Boyle 70). 이러한 콘미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이탄에 대

한 생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콘미 신부는 늪 속에 이탄을 만드시고, 이것을 파내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시나 작은 촌락으로 운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U 10. 104-06). 따라서 콘미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자기 만족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자기 기만을 뜻하는 그의 이름 “Con-me”(늪 속이다) 속에서 엿볼 수 있다.

아일랜드 신부들의 사회적 위상은 콘미 신부의 지배 계층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날 점심때 “맥스웰 귀족 부인”(Lady Maxwell)이 콘미 신부를 방문했다(U 10. 191-2)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국계 아일랜드 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물론 이들의 만남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 신교도이기에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닐 것이다. 맥기니스 부인(M'Guinness)이 콘미 신부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 바로 앞에 데니스 매기니(Denis J Maginni)씨가 맥스웰 귀족 부인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클라이브 하트(Clive Hart)는 이러한 병치가 “콘미가 디그넴(Dignam) 가족일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맥기니스는 디그넴 광장(Dignam court)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203). 그러나 이러한 병치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두 종류의 귀족에게 얼마나 아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는 아일랜드인을 지배해 온, 그렇지만 이제는 쇠퇴하고 있는 영국계 아일랜드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대체할 카톨릭 교회이다.

귀족에 대한 콘미 신부의 지속적인 관심은 카톨릭 교회의 권력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준다. 그는 “낭비벽이 심한 귀족”(U 10. 83-4) 앨드버러(Aldbrough)를 생각한다. “네스토” 에피소드에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역사적 딜레마가 디지로 하여금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내게 하였듯이, 콘미 신부는 때로 귀족적인 인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틀린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루만에 “처녀가 아내가 그리고 과부가 되어 버린”(U 10. 158) 모드 플런켓(Maud Plunkett)의 남편은 “Lord Talbot de Malahide”(U 10. 156)가 아니라 “Mr. Hussesy”였다(Gifford 263). “Lord Talbot”는 플런켓의 세 번째 남편이었다. 콘미 신부가 이름을 혼돈하여 귀족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귀족적 권위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서술자에 의해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을 때도 엿볼 수 있다: “The Superior, the very reverend John Connec S. J.”(U 10. 1).

같은 이유로 메리 로취포트(Mary Rochfort)의 직함, “벨비디어의 최초의 백작 부인”(first countess of Belvedere)이 두 번이나 나온다(U 10. 163; 165). 서술자에 의해 콘미신부의 의식을 나열할 때 처음 나타나고, 콘미 신부의 직접 의식의 흐름 속에 두 번째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직함이 올바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1743년에 그녀의 남편, 로버트 로취포트(Robert Rochfort)는 동생과의 간통혐의로 그녀를 고발하고 감금하였다. 그의 직함 “벨비디어의 최초의 백작”은 1753년 부여된 것이어서 메리를 백작부인이라 불렀는지 의문이다. 또한 콘미 신부의 “예수회 수도원”(jesuit houses)(U 10. 162)에 대한 생각은 벨비디어 하우스(Belvedere Houses)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는데 이 역시 메리와 관계없다. 설리반(Sullivan)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더블린에 있는 벨비디어 하우스를 에넬 호수(Lough Ennel) 근처에 있는 벨비디어 하우스와 혼동하고, 벨비디어 귀족 부인이 전자의 장소에 감금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64). 콘미 신부의 벨비디어 하우스에 대한 생각은 콘미신부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1786년 벨비디어 하우스를 설립한 조지 로취포트(George Rochfort)는 벨비디어의 두 번째 백작이었고, “연합법안(the Act of Union)에 찬성 투표를 한 자”이다(Sullivan 61). 그러므로 콘미 신부의 의식에서 콘미의 귀족에 대한 집착과 그가 동일시하는 아일랜드 귀족의 정치적 배반을 상기시킨다.

콘미 신부는 “noble faces”(U 10. 176), 즉 아일랜드 귀족들을 결혼시킨 것을 회상한다: “the hands of a bride and of a bridegroom, noble to noble, were impalmed by Don John Conmee”(U 10. 177-78). 더욱이 콘미 신부도 귀족이 된 것처럼 스페인 귀족의 호칭인 “Don”(U 10. 174; 178)이 이름 앞에 두 번식이나 언급된다. 결국 콘미 신부의 현대나 과거의 영국계 아일랜드 귀족에 대한 생각은 아일랜드 국민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카톨릭 교회의 동등한 권위와 독립 후에 이들을 대신하는 권력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암시한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지적하듯이 “원주민들은 정착민의 위치에 있고 싶은 꿈을 항상 가진다. 이것은 정착민이 되려는 꿈이 아니라 정착민을 대체하려는 꿈이다”(41).

콘미 신부의 보통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귀족들에 대한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 동정을 느끼지만 일종의 경멸이나 비하감을 숨기고 있다. 이는 다시 한 번 그가 전통적인 지식인임을 나타낸다. 쉘릴

히(Cheryl Herr)가 주장하듯이 “성직자들은 조이스의 소설들이 아주 인습적이라고 제시한 많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방어했다. 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에 기반을 둔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가르쳤다”(232).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계급의식이 콘미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보자. 콘미 신부는 디그넘의 자녀를 도우려 하지만 디그넘이란 이름을 겨우 기억하고, 이 이름이 언급되는 미사 구절을 암송하면서 농담에 잠긴다: “What was that boy’s name again? Dinam. Yes. Vere dignum et iustum est”(U 10. 3-4). 앞서 제시한 것처럼, 흑인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백인들과 콘미가 생각하는 흑인들의 신체적으로 열등한 모습을 말해준다. 콘미 신부는 “크라운 은화”가 외발의 선원에게 주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그들 돕지 않고 형식적인 축복을 한다. 또한 콘미 신부가 “크리스찬 구빈 학교 남학생들”(U 10. 7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서술자의 언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들의 “더러운 모자”(U 10. 77)를 통해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구빈 학교의 학생들이 예수회에 의해 교육받은 학생에 비해 열등하다”는 콘미 신부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다(Kiberd 1034).

콘미 신부의 숨겨진 정체는 조이스에 의해 정교하게 해부된다.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의 네 번째 소품은 스티븐의 누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 고 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 사이에 갑자기 콘미 신부의 모습이 삽입된다: “Father Connec walked through Clongowes fields, his thinsocked ankles tickled by stubble(U 10. 264-65).” 이 구절 속에 “그의 얇은 양말을 신은 무릎이 그루터기에 의해 간지럽혀 진다”는 내용에서 콘미의 진지하지 못한 모습이 암시되어 있다. 그는 아일랜드의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귀족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가난한 스티븐의 누이들이 대변하는 아일랜드 서민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위선이 부각된다. 또한 케이티 디덜러스(Katey Dedalus)가 스티븐의 책을 저장 잡히려 하다가 실패한 전당포는 “M’Guinness’s”(U 10. 267)이다. 콘미 신부가 “여왕다운 용모”(U 10. 67)를 가졌다고 칭찬한 맥기니스 부인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스티븐의 누이들을 돕지 못하는 행동은 콘미 신부의 판단력에 심한 타격을 준다.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영국 통치자는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 마지막에 등장하는 총독이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총독의 행진을 구경

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점에서 총독은 더블린 시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콘미 신부는 직접적으로 총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19개의 소품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총독이 대변하는 영국 정부와 맞먹는 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면에서 콘미 신부와 영국 총독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On Newcomen bridge the very reverend John Connmee S. J. of saint Francis
Xaviers church, upper Gardiner street, stepped on to an outwardbound tram.

Off an inward bound tram stepped the reverend Nicholas Dudley C. C. of
saint Agathas church, north William street, on to Newcomen bridge.

(U 10. 107-12)

콘미 신부가 전차를 타는 장면이 왜 갑자기 니콜라스 더들리 신부가 전차에서 내리는 장면과 병치될까? 더들리 신부는 『올리시즈』에서 이 장면을 제외하고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는 콘미 신부와 병행되어 나오는가? 그의 이름과 그가 시무 하는 교회가 있는 거리가 조이스의 관심사이다. 즉, 총독의 이름이 “William Humble, earl of Dudley”(U 10. 1176)임으로 “William street”에 있는 성당에서 시무하는 “Dudley” 신부는 총독을 연상시킨다. 신부의 이름이 총독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것은 신부의 역할이 아일랜드에서 총독이 맡은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이스는 영국과 카톨릭 교회의 공모관계를 이름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들리 총독이 더블린 시민들에게 인사를 받듯이, 콘미 신부도 많은 시민들—데이비드 쉬히 부인, 맥기네스 부인, 크리스찬 구빈 학교 남학생들, 윌리엄 갤러허(William Gallagher), 두 명의 무직의 사나이들, 경찰관, 차장, 밀회를 나누든 린취와 그의 애인 등—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이는 아일랜드에서 콘미가 대변하는 카톨릭교회가 총독이 상징하는 영국 정부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이 두 권력 집단에 대해 비슷하게 묘사함으로써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있어 그들의 공모관계를 제시한다.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런 묘사 역시 그들의 유사성을 제시하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존경이 얼마나 환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The lychgate of a field showed Father Connmee breadths of cabbages, curtseying to him with ample underleaves”(U 10. 180-81); “From its sluice in Wood quay

wall under Tom Devan's office Poddle river hung out in fealty a tongue of liquid sewage”(U 10. 1196-97). 식물이나 사물도 콘미 신부와 총독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 조이스는 카톨릭 교회와 영국에 의해 수세기 동안 억압받아온 아일랜드의 무기력한 군중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두 권력 집단의 절대적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III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의 첫 소품은 콘미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써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회의 영국 정부와의 관계를 간략하지만 심도 있게 보여준다. 한 신부의 짧은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이스는 세기 전환기에 아일랜드 역사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카톨릭 교회의 여러 모습을 콘미 신부의 생각에서나, 만나는 사람을 통해 보여준다. 킨넨햄, 경찰관, 울지 추기경, 국회의원 데이비드 쉬히, 버나드 본과 영국계 아일랜드 귀족들은 세기 전환기의 여러 정치적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콘미 신부의 이들에 대한 생각은 카톨릭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콘미 신부는 축복과 경건함, 성경암송을 하여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의 의식 세계는 세속적이고 정치적 문제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나 유색인종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멸이나 비하감을 가지고 있어 아일랜드 현실을 바로 이해하지도, 참여하지도 못한다. 이와 반대로 영국계 아일랜드 귀족들에 대한 그의 호의적인 태도는 이들과 대등한 카톨릭 교회의 위상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 교회는 영국 정부와 공모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을 억압한 적도 있지만, 이들과 싸워 독립을 성취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이스는 카톨릭을 대변하는 콘미 신부를 영국을 대변하는 총독과 병행하여 묘사하여, 카톨릭 교회가 영국 정부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준다. 조이스가 아일랜드를 억압한다고 주장한 정치, 문화적 제 양상처럼, 카톨릭 교회는 제국주의의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완전한 독립은 영국에서의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식민지하에서 영국정부와 대등하게 권력을 행사해 온 카톨릭 교회는 아일랜드가 독립하게 될 때 유일한 권력집단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조이스는 카톨릭 교회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

면서, 아일랜드의 진정한 해방은 카톨릭 교회의 억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대)

인용 문헌

- Boyle, Robert S. J. *James Joyce's Pauline Vision: A Catholic Exposi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8.
- Cairns, David and Richards, Shaun. *Writing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7.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An Introduction*, trans. R. Hurley. Harmondsworth: Penguin, 1984.
- Gifford, Don and Seidman, Robert J.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Hall, Stuart.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0. 2 (1986). 5-27.
- Hart, Clive. "Wandering Rocks." In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Herr, Cheryl. *Joyce's Anatomy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4.
- _____.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Kiberd, Declan. *Ulysses: Annotated Student's Edition*. London: Penguin Books, 1992.
- McCabe, Colin. *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 London: Macmillan, 1979.
- Miller, David W.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Ireland: 1898-1918" *Eire-Ireland* 3 (1968). 75-91.
- Said, Edward W. "Yeats and Decolonization." In Terry Eagleton, Fredric Jameson, and Edward W. Said.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intro. by Seamus Deane). A Field Day Company Book.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0. 69-95.
- Sullivan, Kevin. *Joyce among the Jesui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 Williams, Trevor L. "Brothers of the great white lodge: Joyce and the Critique of Imperialism" *James Joyce Quarterly* Q 33 (Spring 1996). 377-397.
- Wollaeger, Mark. "Bloom's Coronation and the Subjection of the Subject." *James Joyce Quarterly*, 28. 4 (Summer 1991), 799-808.

Abstract

Connée and “One Silver Crown”: the Complicity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British Government

Seokmoo Choi

Joyce does not solely blame the British empire for the degraded condition of Ireland. He anatomizes his society by showing various oppressive forces acting in it. Church, politics, and culture together are responsible for social oppression in Ireland. In *Ulysses*, significantly, all oppressors are described as unconscious collaborators of imperialism. Though the Catholic Church's relationship to the British government is mixed, Joyce consistently insists that these two powerful institutions have colluded in oppressing the Irish people.

The first vignette of “Wandering Rocks” episode succinctly shows not only Father Connée as a representative of the Church but also the Church's collusion with the State, thereby creating a microcosm of Joyce's representation of the world of the Irish priest. The Church's position in Irish society in relation to the State is shown by analogy through Connée's meditation on several people—such as Cunningham, a policeman, Cardinal Wolsey, Mr. David Sheehy M. P., Bernard Vaughan, and members of the Anglo-Irish aristocracy—who represent each institution crucial to its political role at the turn of the century. Father Connée's contemplation on the Anglo-Irish aristocracy, whether of ancient or modern times, implies his equivalence to that class with dominating and leading the Irish people and, after its extinction in consequence of independence, the Catholic priests' social role in general. The Church sees the world as dichotomous, which is congruous with the first principle of imperialism. Ultimately, Connée is associated and paralleled with the British viceroy.

For Joyce, independence from Britain is not enough to guarantee a better future largely because independence brings forth another kind of domination,

where colonialism's native counterpart, the Catholic Church, replaces the role of British governments in oppressing Irish people. Joyce, therefore, demonstrates that the Catholic Church is more oppressive force than the British government.